

나주시-나주시학원연합회, '다자녀 가정 학원비 할인' 업무협약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소지자 학원 강습료 추가 할인 적용 기존 월1회(연 12회) 강습료 1만원 할인에 자율적 할인 추가

나주시 관내 학원들이 다자녀가정 자녀 학원비 할인 혜택을 통한 더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나주시는 전남 한국학원총연합회 나주시학원연합회(회장 권시중)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 학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다자녀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가 가맹 학원을 이용 할 시 기존 월 1회(연 12회) 강습료 1만원 할인 혜택에 더해 각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혜택 대상은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가맹 학원을 이용할 시 적용될 방침이다.

현재 나주시학원연합회에는 교과목, 다양한 진로·적성을 교육하는 학원 244곳이 소속돼 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강동렬 보건소장, 권시중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민·관이 더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활로를 모색하고 협력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협약"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권시중 연합회장은 "다자녀 가정 자녀가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가맹점 확대에 적극 나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다자녀행복카드는 전라남도도와 농협, BC카드사가 협약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서 가맹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전국 농협을 방문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 서비스업, 의료, 식품, 영화, 공연, 유아용품 등 가맹 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도내 가맹점 800여곳에서는 3~20% 추가로 할인된다.

현재 나주시지역 가맹업체는 의료기관 11곳, 안경점 4곳, 이·미용업 3곳, 음식점 12곳, 기타 서비스업 7곳 등 총 37곳이다.

카드 발급 및 이용, 가맹점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누리집(jnhappy.bccard.com/jnhappy)에서 확인하거나 나주시 보건소 출산장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송준표기자



곡성군-곡성낙농육우협회, 우유 시음회 제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와 낙우협회 연계 통한 우유 소비 홍보

곡성군이 지난 5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곡성세계장미축제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우유 시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과 축제를 찾아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유뿐만 아니라 요거트, 치즈, 우유떡 등 우유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으로 시음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우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우유가 우리 생활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소비를 촉진하고자 원유 생산농가들이 직접 홍보에 참여했다.

낙농업은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시중 우유 소비량이 줄었다고 젓소 수를 줄이거나 우유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남아도는 우유를 처리하기 위해 분유 제조

등의 대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출산과 우유판매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낙농가들의 고민이 크게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곡산 우유는 365일 안전하게 생산되는 우수한 식품으로 곡성군의 낙농가들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시음회를 통해 우유가 완전식품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곡성낙농육우협회와 협력해 지역 행사와 연계한 우유 소비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유의 위생적인 생산과정과 우유가 제공하는 이로운 등을 강조하여 우유에 대한 가치와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곡성=양혜영기자

화순군, 2023 군민행복 아카데미 '유홍준 교수 강연 성료'

'화순과 그 주위 문화유산의 가치와 위상' 주제

화순군은 지난 5월 26일 화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유홍준 교수를 초청, '화순과 그 주위 문화유산의 가치와 위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군민들이 화순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강연에는 300여 명의 수강생과 군민이 참석해 강

연을 가득 메웠다.

유홍준 교수는 강연에서 화순군 주변의 문화유산에 얽힌 스토리를 재미있게 풀어나가 청강생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흥미를 불러넣어 주었다.

이와 더불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의 뜻인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뜻을 인

용하여 미학관을 설명했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시각을 갖춰야 할지, 문화재와 장인정신을 통해 느낀 바를 되새겨 보고 삶에 적용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강생 중 한 분은 "유홍준 교수 강의를 통해 역사와 예술을 보는 안목을 넓힐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분야별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 반야원, 전라남도 제21호 민간 정원 등록



구례군은 광의면 마산면 수월리에 위치한 '반야원'을 지난 4월 18일 전라남도 제21호 민간 정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정원으로 반야원이 등록됨에 따라 구례군은 쌍산재(민간 정원 제5호)와 천개의 향나무 숲(민간 정원 제14호)을 포함한 3곳의 민간 정원을 보유하게 됐다.

반야원은 20,084㎡ 부지에 허브테리아 향기 정원, 수경 식물정원, 카페 정원과 주차장, 화장실, 플라타너스 카페, 갤러리 등 다양한 편의 시설과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어 구례의 새로운 힐링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5종의 다양한 수목과 조화류가 식재되어 있어 계절마다 다양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으며, 중앙에 자리한 70년 넘은 수령의 플라타너스는 정원의 랜드마크 휴식처가 되고 있다.

반야원 입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다. 구례=박진호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 포스코인터내셔널
- 포스코건설
- 포스코케미칼
- 포스코에너지
- 포스코ICT
- 포스코강판
- 포스코SPS
- 포스코엔텍
- 포스코O&M
- 포스코기술투자
- 포스코티미널
- 포스코A&C